

제 4 실 <근세의 공예>

N-64-부속 오대명왕 방울 부속 상자

N-13-부속 범망경 부속 함

이 작품은 겐로쿠7년(1694), 호류지에서 에코인이라는 절로 보물을 옮겨 일반 공개하였을 때, 도쿠가와 막부의 제5대 쇼군인 쓰데요시의 생모 게이쇼인에게 기부받은 보물 수납함입니다. 뚜껑에는 도쿠가와 가문의 문장과 게이쇼인의 본가인 혼조가문의 문장을 마키에 기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N-299·N-296·N-297 스에바코

승려가 법의나 법구 등 법회에서 필요한 물품을 넣어 곁에 놓아두는 상자로, 셋소바코(설상 상자)라고도 부릅니다. 모두 나무로 만든 상자로, 금동판을 붙여 장식을 더했습니다. 스에바코(N-299)에는 간에이 5년(1628)이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N-131 고쇼 인형

고쇼 인형은 에도시대 18세기 전반 무렵부터 교토의 귀족 관리 사이에서 사랑받았습니다. 큰 머리와 토실토실한 알몸의 유아 모습을 한 인형입니다. 19세기 초에 센토고쇼(퇴위한 천황의 거처)로부터 호류지 사이엔도의 약사불에 봉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N-100 마키에 잠자리와 사마귀무늬 인룡

N-101 마키에 글자 '수(壽)'무늬 인룡

인룡은 허리띠에 차고 다니는 휴대용 약통입니다. 곤충과 다양한 글자체의 '수(壽)'라는 한자를 마키에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인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식성이 더해져 간 것으로 보입니다.